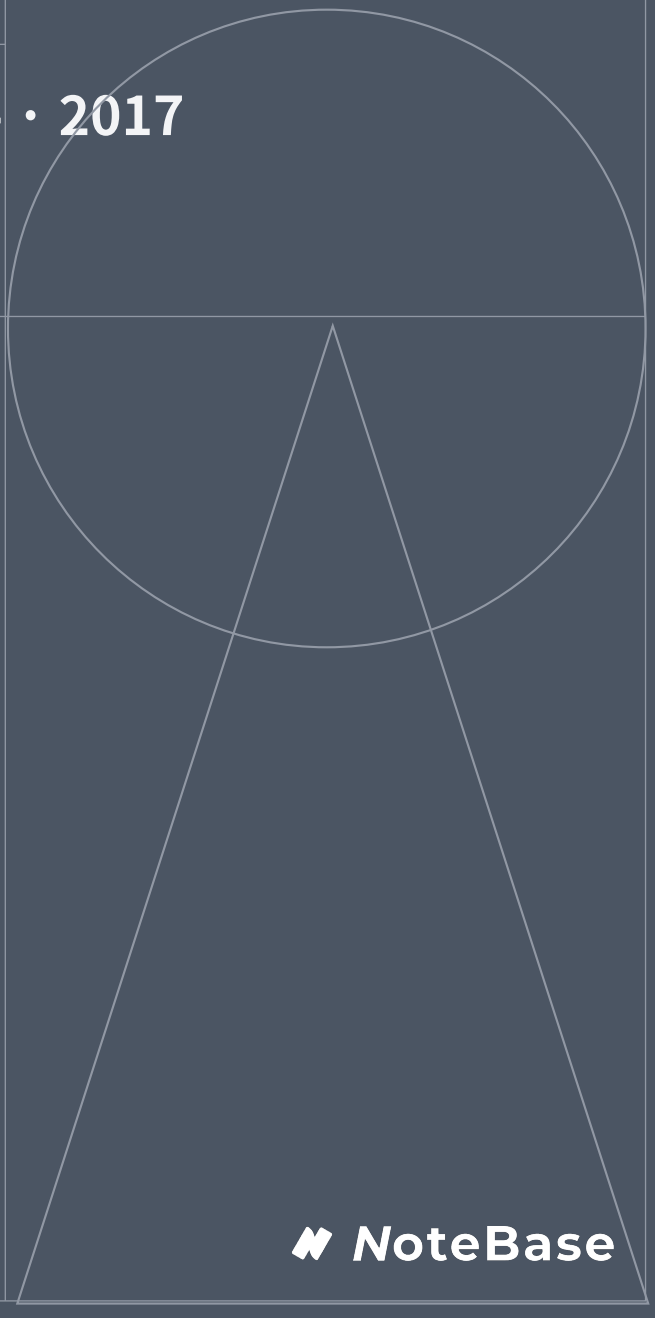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영학개론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영학개론 · 2017

전문직/노무사 · 경영학개론 · 2017

문 101. 제품/시장 매트릭스(product/market matrix)에서 신제품을 가지고 신시장에 진출하는 성장전략은?

① 다각화 전략

② 제품개발 전략

③ 집중화 전략

④ 시장침투 전략

⑤ 시장개발 전략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앤소프(Ansoff)의 제품/시장 매트릭스에서 기존·신제품과 기존·신시장의 조합에 맞는 성장전략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침투 전략은 기존 제품을 기존 시장에서 더 많이 판매하는 전략이다.
제품개발 전략은 신제품을 기존 시장에 판매하는 전략이다.
시장개발 전략은 기존 제품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다.
다각화 전략은 신제품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다각화 전략은 신제품과 신시장을 동시에 선택하는 성장전략이므로 문제의 조건과 일치한다.
② X — 제품개발 전략이라는 표현은 신제품·신시장 조합에 맞지 않는다. 제품개발 전략은 신제품을 기존 시장에 판매하는 전략이다.
③ X — 집중화 전략이라는 표현은 제품/시장 매트릭스의 네 가지 성장전략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중화 전략은 특정 세분시장이나 고객층에 경쟁 범위를 좁추는 경쟁전략이다.
④ X — 시장침투 전략이라는 표현은 신제품·신시장 조합에 맞지 않는다. 시장침투 전략은 기존 제품을 기존 시장에서 더 많이 판매하는 전략이다.
⑤ X — 시장개발 전략이라는 표현은 신제품·신시장 조합에 맞지 않는다. 시장개발 전략은 기존 제품으로 신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다.

오답 포인트

‘신제품’만 보고 ② 제품개발 전략을 고르거나 ‘신시장’만 보고 ⑤ 시장개발 전략을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은 두 축이 모두 새로운 경우이므로 다각화 전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품과 시장이 각각 기존인지 신규인지 먼저 판별한다. 기존·기존은 시장침투, 신제품·기존시장은 제품개발, 기존제품·신시장은 시장개발, 신제품·신시장은 다각화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존·기존은 침투, 신·기는 제품개발, 기·신은 시장개발, 신·신은 다각화이다.

NoteBase

문 102. 경영이론의 주장자와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테일러(Taylor): 차별적 성과급제

② 메이요(Mayo): 비공식 조직의 중시

③ 페이욜(Fayol): 권한과 책임의 원칙

④ 포드(Ford): 고임금 고가격의 원칙

⑤ 베버(Weber): 규칙과 절차의 중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영이론의 주요 학자·실무가와 그들이 강조한 대표 원리를 올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테일러: 차별적 성과급제 — 과학적 관리법에 따라 표준과업의 달성 여부에 차등 임률을 적용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였다.
메이요: 비공식 조직 — 호손실험을 통해 인간관계와 비공식 집단이 작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페이욜: 권한과 책임 — 관리자가 명령할 권한을 가지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보았다.
포드: 고임금·저가격 — 대량생산으로 원가와 제품가격을 낮추고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원리를 추구하였다.
베버: 규칙과 절차 — 합리적·합법적 권위에 기초한 관료제에서 공식 규칙, 명확한 권한 체계, 문서화된 절차를 중시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 테일러는 표준과업을 달성한 근로자와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임률을 적용하는 차별적 성과급제를 제시하였다.
② O — 메이요는 호손실험을 계기로 비공식 조직과 인간관계가 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③ O — 페이욜의 관리 일반원칙에는 권한과 책임의 원칙이 포함되며,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고임금 고가격'이다. 포드의 원리는 대량생산을 통해 제품가격을 낮추면서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고임금 저가격'이다.
⑤ O — 베버의 관료제는 업무를 공식적인 규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조직 형태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④는 포드의 '고임금'이라는 앞부분에 맞는 말을 제시한 뒤 '저가격'을 '고가격'으로 바꾸었다. 포드식 대량생산은 높은 가격이 아니라 원가 절감과 낮은 제품가격을 지향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명과 대표 키워드를 먼저 연결한 뒤 수식어의 방향까지 확인한다. 포드는 대량생산에 따른 저가격과 근로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고임금의 결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테일러=차별적 성과급, 메이요=비공식 조직, 페이욜=권한과 책임, 포드=고임금·저가격, 베버=규칙과 절차이다.

NoteBase

문 103. 생산수량과 일정을 토대로 필요한 자재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관리시스템은?

① CIM

② FMS

③ MRP

④ SCM

⑤ TQM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생산수량과 생산일정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재의 종류·수량·조달시기를 계획하는 시스템이 MRP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RP(자재소요계획)는 주생산일정, 자재명세서, 재고기록을 토대로 어떤 자재를 언제 얼마나 주문하거나 생산할지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CIM은 설계·생산·관리 활동의 컴퓨터 통합, FMS는 생산품목이나 생산량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동화 생산시스템, SCM은 공급자부터 최종고객까지 이어지는 공급사슬 전체의 통합 관리, TQM은 전사적·지속적인 품질개선을 뜻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CIM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CIM은 컴퓨터통합생산시스템으로, 설계·생산·관리 활동을 컴퓨터 기술로 통합하는 개념이다. 생산수량과 일정에 따른 자재조달 계획은 MRP이다.

② X
FMS라는 연결이 틀렸다. FMS는 유연생산시스템으로, 제품 종류나 생산량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자동화 설비를 구성한 시스템이다. 필요한 자재의 종류·수량·시기를 산출하는 시스템은 MRP이다.

③ O
MRP는 생산수량과 생산일정을 기초로 자재명세서와 재고정보를 반영하여 필요한 자재의 종류, 수량, 조달시기를 계획한다.

④ X
SCM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SCM은 공급사슬관리로, 원재료 공급자부터 생산·유통을 거쳐 최종고객에 이르는 물자·정보·자금의 흐름을 통합 관리한다. 개별 생산계획에 맞춘 자재소요 산정은 MRP이다.

⑤ X
TQM이라는 연결이 틀렸다. TQM은 전사적 품질경영으로, 고객만족을 목표로 조직 전체가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는 경영방식이다. 생산수량과 일정에 따른 자재조달 계획은 MRP이다.

오답 포인트

생산관리 약어가 한꺼번에 제시되어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④ SCM도 자재 흐름을 다루지만, 문제의 핵심 표현은 공급사슬 전체가 아니라 '생산수량과 일정에 맞춘 필요한 자재의 조달 계획'이므로 MRP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서 관리 대상과 범위를 확인한다. '무엇을·얼마나·언제 조달할 것인가'가 생산계획에 연동되면 MRP, 공급자부터 고객까지의 전체 흐름이면 SCM, 생산활동 전반의 컴퓨터 통합이면 CIM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MRP는 생산계획을 자재의 종류·수량·시기로 바꾸는 자재소요계획이다.

NoteBase

문 104.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직이론은?

◯ 조직의 환경요인들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 조직 생존의 핵심적인 요인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조직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① 제도화 이론
② 자원의존 이론
③ 조직군 생태학 이론
④ 거래비용 이론
⑤ 학습조직 이론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설명하는 조직이론을 대표 키워드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외부 자원의 획득·유지, 자원 제공자에 대한 의존, 조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환경 통제는 자원의존 이론의 핵심이다.

핵심 정리

자원의존 이론: 조직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 환경에서 얻으므로 자원 제공자에게 의존하며, 그 의존을 줄이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도화 이론: 조직은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해 제도적 규범과 관행을 받아들인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 환경이 조직을 선택하며, 조직군 수준에서 조직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한다.
거래비용 이론: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위계조직·혼합형 등 거래의 지배구조를 선택한다고 본다.
학습조직 이론: 구성원과 조직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지식을 공유하여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을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제도화 이론'은 틀린 연결이다. 제도화 이론은 조직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 사회의 규범·가치·관행과 같은 제도적 압력을 수용한다고 설명한다. 제시문의 자원 획득과 환경 통제는 자원의존 이론에 해당한다.
② O — 자원의존 이론은 조직이 생존에 필요한 외부 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자원 제공자에 대한 의존을 관리하고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제시문의 세 문장과 모두 일치한다.
③ X —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틀린 연결이다.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개별 조직의 능동적인 환경 통제보다 환경의 선택과 조직의 구조적 관성, 조직군의 생성·소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제시문은 자원의존 이론에 해당한다.
④ X — '거래비용 이론'은 틀린 연결이다. 거래비용 이론은 자산특수성, 불확실성, 거래빈도 등의 조건에 따라 거래비용을 줄이는 지배구조를 선택한다고 설명한다. 제시문의 외부 자원 의존 관리와 자율성 확보는 자원의존 이론의 설명이다.
⑤ X — '학습조직 이론'은 틀린 연결이다. 학습조직 이론은 지속적 학습, 지식의 창출·공유, 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한다. 제시문의 자원 획득·유지와 환경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자원의존 이론에 해당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모든 선지가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다루는 이론처럼 보이지만, 제시문의 결정적 표현은 '자원을 획득하고 유지',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 '환경에 대한 영향력 행사'이다. 특히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만 보고 조직군 생태학 이론을 고르면 안 된다. 환경에 수동적으로 선택되는가, 필요한 자원을 둘러싼 의존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가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 자원, 의존관계, 권력, 자율성, 환경 통제가 함께 제시되면 자원의존 이론으로 판단한다. 정당성·동형화는 제도화 이론, 환경선택·구조적 관성은 조직군 생태학 이론, 거래비용 최소화는 거래비용 이론, 지속적 학습·지식 공유는 학습조직 이론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자원의존 이론 =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을 관리하여 조직의 생존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이론이다.

NoteBase

문 10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직무설계는?

◯ 직무성과가 경제적 보상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만족에 있다고 전제한다.
◯ 종업원에게 직무의 정체성과 중요성을 높여주고 일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 종업원에게 많은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여 직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① 직무 순환
② 직무 전문화
③ 직무 특성화
④ 수평적 직무확대
⑤ 직무 충실화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직무의 범위만 넓히는 방식과 자율성·책임까지 높여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직무충실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무충실화는 계획·의사결정·통제와 같은 상위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직무에 더하는 수직적 직무확대이다.
직무의 정체성·중요성, 자율성, 책임감과 성취감을 높여 일 자체에서 심리적 만족을 얻도록 한다.
직무순환은 여러 직무를 일정 기간 번갈아 맡기는 방식이고, 직무전문화는 일을 세분화하여 한정된 과업을 반복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수평적 직무확대는 비슷한 수준의 과업 수와 종류를 늘리지만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의 깊이까지 높이는 방식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직무순환은 종업원을 여러 직무로 옮겨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는 방식이다. 틀린 표현은 '직무 순환'이며, 제시문의 자율성·책임 확대와 심리적 성취감은 직무충실화에 해당한다.
② X — 직무전문화는 직무를 세분화하여 특정 과업을 능률적으로 반복하게 하는 방식이다. 틀린 표현은 '직무 전문화'이며, 제시문처럼 직무의 의미와 자율성·책임을 높이는 방식은 직무충실화이다.
③ X — 직무특성화는 직무의 핵심 특성이 종업원의 심리 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관계를 강조하는 관점이지, 제시된 직무설계 방식의 명칭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직무 특성화'이며, 제시문의 방식은 직무충실화이다.
④ X — 수평적 직무확대는 동일한 수준의 과업을 추가하여 직무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상위 수준의 권한과 책임까지 부여하지는 않는다. 틀린 표현은 '수평적 직무확대'이며, 자율성과 책임을 수직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은 직무충실화이다.
⑤ O — 직무충실화는 직무의 의미와 완결성을 높이고 종업원에게 자율성 및 책임을 부여하여 보람·성취감 같은 내재적 만족을 높이는 방식이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직무경험의 기회'만 보면 ① 직무순환을 떠올리기 쉽고, '직무의 범위를 넓힌다'는 점만 보면 ④ 수평적 직무확대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은 '많은 자율성과 책임', '심리적 만족', '보람과 성취감'을 함께 제시하므로 수직적 확대인 직무충실화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과업의 종류만 늘어나면 수평적 직무확대, 다른 직무를 번갈아 맡으면 직무순환, 의사결정 권한·자율성·책임과 성취감까지 커지면 직무충실화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직무확대는 일의 폭, 직무충실화는 일의 깊이와 권한·책임이다.

NoteBase

문 106. 호손실험(Hawthorne experiment)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면접실험
ㄴ. 조명실험
ㄷ. 배전기 전선작업실 관찰
ㄹ. 계전기 조립실험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ㄴ → ㄹ → ㄱ → ㄷ
④ ㄴ → ㄹ → ㄷ → ㄱ
⑤ ㄹ → ㄱ → ㄷ → 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호손실험의 네 단계가 조명실험, 계전기 조립실험, 면접실험, 배전기 전선작업실 관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조명실험(ㄴ) — 조명의 밝기와 작업능률의 관계를 조사한 단계이다.
2. 계전기 조립실험(ㄹ) — 소집단의 작업조건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단계이다.
3. 면접실험(ㄱ) — 종업원 면접을 통해 태도와 감정 등 심리적 요인을 파악한 단계이다.
4. 배전기 전선작업실 관찰(ㄷ) — 작업집단을 관찰하여 비공식집단의 규범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단계이다.

따라서 올바른 순서는 ㄴ → ㄹ → ㄱ → ㄷ이다. 연구의 초점이 물리적 작업환경에서 소집단의 반응과 종업원의 태도로 확장된 뒤, 마지막에 실제 작업집단의 비공식 규범을 관찰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면접실험)을 ㄴ(조명실험)보다 앞에 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ㄴ → ㄹ → ㄱ → ㄷ이다.
② X — ㄱ(면접실험)으로 시작하고 ㄴ(조명실험)을 마지막에 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ㄴ → ㄹ → ㄱ → ㄷ이다.
③ O — ㄴ(조명실험) → ㄹ(계전기 조립실험) → ㄱ(면접실험) → ㄷ(배전기 전선작업실 관찰)로 실제 진행 순서와 일치한다.
④ X — ㄷ(배전기 전선작업실 관찰)을 ㄱ(면접실험)보다 앞에 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면접실험을 먼저 실시한 뒤 배전기 전선작업실을 관찰하므로 ㄴ → ㄹ → ㄱ → ㄷ이다.
⑤ X — ㄹ(계전기 조립실험)으로 시작하고 ㄴ(조명실험)을 마지막에 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조명실험이 먼저이고 배전기 전선작업실 관찰이 마지막이므로 ㄴ → ㄹ → ㄱ → ㄷ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앞의 ㄴ → ㄹ이 맞아 보이지만, 뒤의 면접실험과 배전기 전선작업실 관찰의 순서를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면접으로 종업원의 태도와 감정을 조사한 뒤 작업집단을 직접 관찰했다는 선후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호손실험의 순서는 연구 초점의 변화에 따라 판단한다. 물리적 환경인 조명 → 소집단 작업조건인 계전기 조립 → 종업원의 태도를 듣는 면접 → 비공식집단의 규범을 보는 배전기 전선작업실 관찰의 흐름이다.

암기 포인트

‘조-계-면-배’, 즉 조명 → 계전기 → 면접 → 배전기 순서이다.

NoteBase

문 107. 기대이론에서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단성이 높아야 동기부여가 된다.

② 기대가 높아야 동기부여가 된다.

③ 조직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수단성이 높아진다.

④ 가치관에 부합되는 보상이 주어질수록 유의성이 높아진다.

⑤ 종업원들은 주어진 보상에 대하여 동일한 유의성을 갖는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기대이론의 세 요인인 기대, 수단성, 유의성의 의미와 동기부여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대이론은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인 기대, 성과를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 수단성, 그 보상을 개인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평가하는지를 뜻하는 유의성이 함께 동기부여를 결정한다고 본다.
기대: 노력 → 성과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수단성: 성과 → 보상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유의성: 보상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가치나 매력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수단성이 높다는 것은 좋은 성과를 내면 원하는 보상이 실제로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크다는 뜻이므로 동기부여가 커진다.
② O — 기대가 높다는 것은 노력하면 필요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므로 동기부여가 커진다.
③ O — 조직이 성과에 약속한 보상을 공정하고 확실하게 제공한다고 신뢰할수록 성과와 보상의 연결에 대한 믿음인 수단성이 높아진다.
④ O — 보상이 개인의 가치관과 욕구에 부합할수록 그 보상을 매력적으로 평가하므로 유의성이 높아진다.
⑤ X — 틀린 표현은 '동일한 유의성을 갖는다'이다. 유의성은 같은 보상이라도 개인의 욕구와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므로, 올바르게는 '종업원들은 주어진 보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의성을 가질 수 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⑤는 조직이 동일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사실과 구성원이 그 보상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판단을 혼동하게 한다. 보상 자체가 같아도 개인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므로 유의성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력에서 성과로 이어지는 믿음은 기대, 성과에서 보상으로 이어지는 믿음은 수단성, 보상 자체의 개인별 매력도는 유의성으로 구분한다. 특히 '모든 종업원이 같은 보상 가치를 느낀다'는 표현은 유의성의 개인차를 무시하므로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노력 → 성과는 기대, 성과 → 보상은 수단성, 보상의 개인별 매력은 유의성이다.

NoteBase

문 108.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종업원 사이의 교환이나 거래관계를 통해 발휘된다.

② 서번트 리더십은 목표달성이라는 결과보다 구성원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둔다.

③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비전달성을 위해 위험감수 등 비범한 행동을 보인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의 가치관 변화와 조직몰입을 증가시킨다.

⑤ 슈퍼 리더십은 리더가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둔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거래적·서번트·카리스마적·변혁적·슈퍼 리더십의 핵심 초점과 행동 특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거래적 리더십: 성과와 보상의 교환관계를 통해 구성원의 행동을 이끄는 리더십이다. 키워드는 교환·보상이다.
서번트 리더십: 리더가 구성원을 섬기고 성장과 욕구 충족을 지원하는 리더십이다. 키워드는 봉사·구성원 우선이다.
카리스마적 리더십: 매력적인 비전과 비범한 행동으로 구성원의 신뢰와 헌신을 끌어내는 리더십이다. 키워드는 비전·위험 감수이다.
변혁적 리더십: 장기 비전과 가치 변화를 통해 구성원이 기대 이상의 성과와 조직몰입을 보이게 하는 리더십이다. 키워드는 변화·동기 고양이다.
슈퍼 리더십: 구성원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셀프 리더가 되도록 돕는 리더십이다. 키워드는 자율·자기관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가 성과 기준과 보상을 제시하고 구성원이 이에 반응하는 교환·거래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② O.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 자신의 권한이나 단기 성과보다 구성원을 섬기고 성장시키는 데 우선적인 초점을 둔다.
③ O. 카리스마적 리더는 매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등 관행을 벗어난 행동을 보인다.
④ O. 변혁적 리더십은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가치관과 동기를 높은 수준으로 변화시켜 조직몰입을 높인다.
⑤ X. 틀린 표현은 '리더가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도록 한다'이다. 슈퍼 리더십은 리더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이 스스로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의 힘과 기술을 갖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⑤는 슈퍼 리더십의 '힘과 기술을 갖게 한다'는 설명의 주체를 리더로 바꾸어 놓았다. 슈퍼 리더십에서 능력을 갖추는 핵심 주체는 리더가 아니라 구성원이며, 지향점도 타인 통제가 아니라 자기통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리더십 유형별 중심어를 확인한다. 성과와 보상의 교환은 거래적 리더십, 구성원에 대한 봉사와 성장은 서번트 리더십, 비전과 비범한 위험 감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가치 변화와 조직몰입은 변혁적 리더십, 구성원의 자기관리와 셀프 리더 육성은 슈퍼 리더십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슈퍼 리더십은 리더의 슈퍼 통제가 아니라 구성원을 셀프 리더로 만드는 리더십이다.

NoteBase

문 109. 질적 인력수요 예측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브레인스토밍법
② 명목집단법
③ 시나리오 기법
④ 자격요건 분석법
⑤ 노동과학적 기법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질적 인력수요 예측기법과 정량적 인력수요 예측기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질적 인력수요 예측은 전문가의 판단, 토의, 시나리오, 직무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의 비계량적 정보를 이용해 미래 인력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정량적 인력수요 예측은 업무량, 표준시간, 과거 추세, 비율 등 수치 자료를 이용해 필요한 인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판단과 집단적 의견 형성이 중심이면 질적 기법이고, 업무량과 시간의 수량적 측정이 중심이면 정량적 기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브레인스토밍법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미래 인력수요에 관한 판단을 모으는 질적 기법이다.
② O — 명목집단법은 참가자들이 독립적으로 의견을 낸 뒤 이를 공유·평가하여 집단의 판단을 도출하는 질적 기법이다.
③ O —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의 여러 환경과 상황을 가정하고 각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판단하는 질적 기법이다.
④ O — 자격요건 분석법은 미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능력과 자격을 분석하여 요구 인력의 성격과 수요를 판단하는 질적 기법이다.
⑤ X — 노동과학적 기법은 업무량과 표준 작업시간 등을 측정하여 필요한 인원수를 계산하는 정량적 기법이다. 틀린 표현은 '질적 인력수요 예측기법'이며, 올바르게는 '정량적 인력수요 예측기법'이다.

오답 포인트

'노동과학적'이라는 말이 사람의 경험이나 판단을 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작업량과 표준시간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인원수를 산정한다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문가 의견·집단 토의·미래 상황 가정·자격요건 판단이 중심이면 질적 기법으로, 업무량·시간·비율·추세의 수치 계산이 중심이면 정량적 기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의견·시나리오·자격요건은 질적, 업무량·표준시간을 재는 노동과학적 기법은 정량적이다.

NoteBase

문 110. 종업원 선발을 위한 면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구조화 면접은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한다.

② 집단 면접의 경우 맥락효과(context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면접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내용 개발 단계에서 면접관이나 경영진을 배제한다.

④ 위원회 면접은 한명의 면접자가 여러 명의 피면접자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⑤ 스트레스 면접은 여러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이 면접하는 방식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종업원 선발면접의 유형별 실시 방식과 각 면접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평가상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조화 면접은 모든 지원자에게 미리 정한 표준화된 질문과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면접이고, 비구조화 면접은 질문의 내용과 순서가 면접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면접이다.
집단 면접은 여러 지원자를 함께 면접하므로 다른 지원자의 수준이나 답변이 평가의 준거가 되는 맥락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위원회 면접은 여러 명의 면접관이 한 명의 지원자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다.
스트레스 면접은 지원자에게 의도적으로 압박을 주어 긴장 상황에서의 반응과 대처를 살피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비구조화 면접은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한다'이다.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는 것은 구조화 면접이며, 비구조화 면접은 질문의 내용과 순서가 미리 엄격하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② O — 집단 면접에서는 여러 지원자가 같은 상황에서 평가되므로 앞선 지원자의 답변이나 다른 지원자의 수준이 이후 평가의 준거에 영향을 주는 맥락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면접관이나 경영진을 배제한다'이다. 면접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려면 직무와 조직을 잘 아는 면접관·현업 관리자·경영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무 관련 질문과 평가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한 명의 면접자가 여러 명의 피면접자를 평가한다'이다. 위원회 면접은 여러 명의 면접관이 한 명의 지원자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여러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이 면접한다'이다. 이는 순차적 면접 또는 연속 면접에 해당하며, 스트레스 면접은 의도적으로 압박이나 긴장을 조성하여 지원자의 반응과 대처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오답 포인트

면접 유형의 명칭과 실시 인원을 바꾸어 놓은 표현이 함정이다. 특히 ④는 집단 면접과 위원회 면접을, ⑤는 스트레스 면접과 순차적·연속 면접을 서로 뒤바꾸고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문의 표준화 여부, 면접관과 지원자의 인원 구성, 압박 상황의 조성 여부, 면접의 단계 수를 차례로 확인하면 면접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여러 지원자를 함께 보면 집단 면접, 여러 면접관이 한 지원자를 보면 위원회 면접, 압박을 가하면 스트레스 면접이다.

암기 포인트

표준 질문은 구조화, 여러 지원자는 집단, 여러 면접관은 위원회, 의도적 압박은 스트레스 면접이다.

NoteBase

문 111. 노사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좁은 의미의 노사관계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의미한다.

② 메인테넌스 숍(maintenance shop)은 조합원이 아닌 종업원에게도 노동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이다.

④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을 폐쇄할 수 있다.

⑤ 채용이후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제도는 유니온 숍(union shop)이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노사관계의 범위, 노동조합 가입제도,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메인테넌스 숍과 에이전시 숍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메인테넌스 숍(maintenance of membership shop)은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에이전시 숍(agency shop)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단체교섭의 혜택에 대한 비용으로 조합비 상당액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유니온 숍(union shop)은 채용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메인테넌스 숍은 기존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유지를 요구하고, 에이전시 숍은 비조합원에게도 조합비 상당액을 부담시킨다.
유니온 숍은 채용 후 노동조합 가입을 요구하는 반면, 클로즈드 숍은 노동조합 가입을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직장폐쇄 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좁은 의미의 노사관계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뜻한다.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노사관계이다.

② X
비조합원에게도 조합비 상당액을 부담시키는 제도는 에이전시 숍이다.
틀린 표현: 메인테넌스 숍은 조합원이 아닌 종업원에게도 노동조합비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올바른 표현: 메인테넌스 숍은 이미 가입한 조합원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 O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은 전통적으로 개별 기업을 단위로 하는 기업별 노조 중심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 조직형태의 전통적 특징과 특정 시점의 조직형태별 조합원 수 비중은 구별한다.

④ O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여야 하며,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⑤ O
유니온 숍은 근로자가 채용된 뒤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용 전에 노동조합 가입을 요구하는 클로즈드 숍과 구별된다.

오답 포인트

②의 함정은 메인테넌스 숍을 에이전시 숍과 바꾸어 놓은 데 있다. '비조합원도 비용 부담'은 에이전시 숍이고, '가입한 조합원이 자격 유지'는 메인테넌스 숍이다. 또한 ⑤의 채용 후 가입과 클로즈드 숍의 채용 전 가입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조합 가입제도는 채용 전 가입, 채용 후 가입, 기존 가입 유지, 비조합원의 비용 부담 중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한다. 각각 클로즈드 숍, 유니온 숍, 메인테넌스 숍, 에이전시 숍에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채용 전은 클로즈드, 채용 후는 유니온, 가입 유지는 메인테넌스, 비조합원 비용은 에이전시이다.

NoteBase

문 112. 시장세분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분화된 시장 내에서는 이질성이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효과적인 시장세분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규모가 측정 가능해야 한다.

③ 나이, 성별, 소득은 인구통계학적 세분화 기준에 속한다.

④ 제품사용 상황, 추구편익은 행동적 세분화 기준에 속한다.

⑤ 라이프스타일, 성격은 심리도식적 세분화 기준에 속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시장세분화의 기본 원칙과 인구통계학적·행동적·심리도식적 세분화 기준의 대표 변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장세분화는 전체 시장을 욕구나 행동 특성이 비슷한 소비자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다.
세분시장 내부는 동질성이 높아야 하고, 서로 다른 세분시장 사이는 이질성이 높아야 한다.
인구통계학적 기준은 나이·성별·소득 등 객관적 인구 특성, 행동적 기준은 사용 상황·추구편익 등 제품에 대한 행동, 심리도식적 기준은 라이프스타일·성격 등 심리적 특성을 이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세분화된 시장 내에서는 이질성이 극대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세분시장 내부의 동질성을 극대화하고 세분시장 간 이질성을 크게 해야 한다.

② O
효과적인 세분시장은 규모와 구매력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장 규모의 측정 가능성은 필요한 조건이다.

③ O
나이, 성별, 소득은 소비자의 객관적인 인구 특성이므로 인구통계학적 세분화 기준에 해당한다.

④ O
제품사용 상황과 추구편익은 소비자가 제품을 언제 사용하고 어떤 효익을 원하는지를 나타내므로 행동적 세분화 기준에 해당한다.

⑤ O
라이프스타일과 성격은 소비자의 생활양식과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심리도식적 세분화 기준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이질성' 자체만 보고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시장세분화는 집단 간 차이를 크게 만드는 동시에 같은 집단 내부의 유사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시장 내'와 '시장 간'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분화 원칙은 '내부 동질성, 집단 간 이질성'으로 판단한다. 세분화 변수는 객관적 인구 특성이면 인구통계학적, 제품 사용·편익과 관련되면 행동적, 생활양식·성격과 관련되면 심리도식적으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시장 안은 비슷하게, 시장 사이는 다르게 구분한다.

NoteBase

문 113. A 사가 프린터를 저렴하게 판매한 후, 그 프린터의 토너를 비싼 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① 종속제품 가격결정(captive product pricing)
② 묶음 가격결정(bundle pricing)
③ 단수 가격결정(odd pricing)
④ 침투 가격결정(penetration pricing)
⑤ 스키밍 가격결정(skimming pricing)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주제품과 그 사용에 필수적인 종속제품의 가격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종속제품 가격결정의 사례를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종속제품 가격결정은 주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계속 구매해야 하는 소모품이나 부속품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다. 프린터와 토너, 면도기와 면도날처럼 주제품과 종속제품의 결합 관계가 핵심이다.
묶음 가격결정은 여러 제품을 하나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방식이고, 단수 가격결정은 가격 끝자리를 9나 99처럼 정하는 심리적 가격결정이다.
침투 가격결정은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려고 신제품의 초기 가격을 낮게 정하는 방식이고, 스키밍 가격결정은 초기 가격을 높게 정해 지불의사가 높은 고객층부터 공략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프린터라는 주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사용에 필요한 토너라는 종속제품을 비싸게 판매하므로 종속제품 가격결정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묶음 가격결정'이다. 묶음 가격결정은 둘 이상의 제품을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여 함께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 사례는 올바르게는 종속제품 가격결정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단수 가격결정'이다. 단수 가격결정은 10,000원 대신 9,900원처럼 가격 끝자리를 단수로 표시하여 더 저렴하게 느끼게 하는 방식이다. 이 사례는 올바르게는 종속제품 가격결정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침투 가격결정'이다. 침투 가격결정은 신제품의 초기 가격을 낮게 정해 많은 고객과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사례는 올바르게는 종속제품 가격결정이다.
⑤ X — 틀린 표현은 '스키밍 가격결정'이다. 스키밍 가격결정은 신제품의 초기 가격을 높게 정해 지불의사가 높은 고객층에서 수익을 확보한 뒤 점차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 사례는 올바르게는 종속제품 가격결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프린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표현만 보고 ④의 침투 가격결정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결정적 단서는 프린터 가격 자체가 아니라 프린터 사용에 필수적인 토너를 비싸게 판매한다는 주제품·종속제품의 관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본체를 저렴하게 판매한 뒤 그 본체를 계속 사용하려면 필요한 소모품이나 부속품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지 확인한다. 본체와 필수 소모품의 결합이 보이면 종속제품 가격결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본체는 싸게, 필수 소모품은 비싸게 정하면 종속제품 가격결정이다.

NoteBase

문 114. 제품 구성요소 중 유형제품(tangible product)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보증(guarantee)

② 상표명(brand name)

③ 대금결제방식(payment)

④ 배달(delivery)

⑤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품의 세 수준 가운데 유형제품과 확장제품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핵심제품: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여 얻으려는 본질적인 편익이다.
유형제품: 핵심편익을 실제 제품의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 품질, 특징, 디자인, 상표명, 포장 등이 포함된다.
확장제품: 유형제품에 덧붙여 제공하는 부가적 혜택과 서비스로 보증, 대금결제 조건, 배달, 애프터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구분 기준은 제품 자체를 구성하는 속성인지, 구매 전후에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서비스인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보증(guarantee)은 제품 자체의 물리적·식별적 속성이 아니라 구매 후 위험을 줄여 주는 추가 혜택이므로 확장제품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인 '유형제품'은 '확장제품'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상표명(brand name)은 제품을 식별하고 경쟁 제품과 구별하게 하는 실제 제품의 구성요소이므로 유형제품에 해당한다.
③ X — 대금결제방식(payment)은 제품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구매를 지원하는 결제 조건이라는 부가 혜택이므로 확장제품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인 '유형제품'은 '확장제품'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배달(delivery)은 완성된 제품에 추가되어 고객에게 제공되는 유통·서비스 혜택이므로 확장제품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인 '유형제품'은 '확장제품'으로 고쳐야 한다.
⑤ X —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는 구매 후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이므로 확장제품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인 '유형제품'은 '확장제품'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제품 구성요소'라는 말 때문에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모든 항목을 유형제품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보증·결제·배달·애프터 서비스는 제품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제품에 덧붙는 혜택이고, 상표명만 제품을 식별하는 유형제품의 구성요소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품질·특징·디자인·상표명·포장처럼 실제 제품을 이루고 식별하게 하는 속성은 유형제품으로, 보증·결제 조건·배달·설치·애프터 서비스처럼 구매를 전후하여 추가되는 혜택은 확장제품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유형제품은 '품질·특징·디자인·상표·포장', 확장제품은 '보증·결제·배달·설치·사후서비스'이다.

NoteBase

문 115. 다음에서 증권시장선(SML)을 이용하여 A 주식의 균형기대수익률을 구한 값은?

◯ 무위험이자율: 5%
◯ 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10%
◯ A 주식의 베타: 1.2

① 5%
② 7%
③ 9%
④ 11%
⑤ 13%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증권시장선(SML)의 식에 무위험이자율, 시장위험프리미엄, 베타를 대입하여 주식의 균형기대수익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무위험이자율 $R_f = 5\%$, 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E(R_m) = 10\%$, A 주식의 베타 $\beta_A = 1.2$이다.
구해야 할 값: A 주식의 균형기대수익률 $E(R_A)$이다.
주의할 조건: 베타는 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전체가 아니라 시장위험프리미엄 $E(R_m) - R_f$에 곱한다.

사용할 공식

$E(R_A) = R_f + \beta_A \{E(R_m) - R_f\}$
SML은 체계적 위험인 베타와 균형기대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시장위험프리미엄은 $10\% - 5\% = 5\%$이다.
2. A 주식의 위험프리미엄은 $1.2 \times 5\% = 6\%$이다.
3. 무위험이자율을 더하면 $E(R_A) = 5\% + 6\% = 11\%$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5%는 무위험이자율일 뿐 A 주식의 위험 보상이 반영되지 않은 값이다. ‘5%’가 아니라 올바른 균형기대수익률은 11%이다.
② X — 7%는 SML 공식에 세 값을 정확히 대입한 결과가 아니다. ‘7%’가 아니라 $5\% + 1.2(10\% - 5\%) = 11\%$이다.
③ X — 9%는 시장위험프리미엄 5%에 베타 1.2를 곱해 얻는 위험프리미엄 6%와 일치하지 않는다. ‘9%’가 아니라 무위험이자율 5%와 위험프리미엄 6%를 합한 11%이다.
④ O — $5\% + 1.2(10\% - 5\%) = 11\%$이므로 A 주식의 균형기대수익률과 일치한다.
⑤ X — 13%는 SML 공식에 따른 계산 결과보다 2%p 높다. ‘13%’가 아니라 올바른 균형기대수익률은 11%이다.

오답 포인트

베타 1.2를 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10%에 바로 곱하는 것이 핵심 함정이다. 먼저 10%에서 무위험이자율 5%를 빼 시장위험프리미엄을 구하고, 여기에 베타를 곱한 뒤 무위험이자율을 다시 더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SML 문제는 ‘시장수익률에서 무위험이자율 차감 → 베타 곱하기 → 무위험이자율 더하기’의 순서로 계산한다. 베타가 1보다 크면 균형기대수익률은 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보다 높아야 하므로 11%가 방향상으로도 타당하다.

암기 포인트

SML은 ‘무위험수익률 + 베타 × 시장위험프리미엄’이다.

NoteBase

문 116.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의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투자자는 위험회피형 투자자이며 기대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무위험자산이 존재하며, 무위험이자율로 무제한 차입 또는 대출이 가능하다.

③ 세금과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불완전 자본시장이다.

④ 투자자는 평균-분산 기준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⑤ 모든 투자자는 투자대상의 미래 수익률의 확률분포에 대하여 동질적 예측을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CAPM이 전제하는 완전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 가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CAPM은 위험자산의 기대수익률을 체계적 위험으로 설명하기 위해 투자자가 평균-분산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모든 투자자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동질적 예측을 하며, 세금·거래비용과 같은 시장 마찰이 없는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한다. 또한 무위험자산이 존재하고 동일한 무위험이자율로 차입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 CAPM의 투자자는 위험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투자자로 가정된다.
② O — 무위험자산이 존재하고 투자자가 동일한 무위험이자율로 제한 없이 차입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는 것이 CAPM의 기본 가정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세금과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불완전 자본시장'이다. 올바르게는 세금과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한다.
④ O — 투자자는 기대수익률인 평균과 위험인 분산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⑤ O — 모든 투자자는 투자대상의 미래 수익률 확률분포에 관해 동일한 기대를 형성한다는 동질적 예측 가정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존재하는'과 '불완전'이 함정이다. 현실의 자본시장에는 세금과 거래비용이 있지만, CAPM은 현실을 단순화하여 이러한 시장 마찰이 없는 완전 자본시장을 전제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APM의 가정을 묻는 문제에서는 투자자 측면의 '위험회피·기대효용 극대화·평균-분산 선택·동질적 예측'과 시장 측면의 '무위험자산 존재·동일한 무위험이자율로 차입 및 대출·세금과 거래비용 없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CAPM은 합리적·동질적 투자자와 마찰 없는 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한다.

NoteBase

문 117. 자본시장선(CM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둘 다 고려할 경우의 효율적 투자기회선이다.
ㄴ. 자본시장선 아래에 위치하는 주식은 주가가 과소평가된 주식이다.
ㄷ. 개별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 간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ㄹ.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균형가격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할인율을 제공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자본시장선(CML)과 증권시장선(SML)의 적용 대상과 위험 측정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ㄱ과 ㄹ이 옳다.

핵심 개념

자본시장선(CML): 무위험자산과 시장포트폴리오를 결합하여 만든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총위험 사이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위험은 수익률의 표준편차로 측정한다.
증권시장선(SML): 개별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 사이의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위험은 베타로 측정하며, 증권의 과소평가·과대평가 판단에도 사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다. CML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별주식이 CML 아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소평가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개별주식이 SML 위에 있으면 기대수익률이 균형수익률보다 높아 과소평가된 것이고, SML 아래에 있으면 과대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ㄱ, ㄴ'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② X — ㄴ과 ㄷ이 모두 틀리다. ㄴ의 과소평가 판단 기준은 CML이 아니라 SML이고, ㄷ의 '개별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 간 선형관계'도 SML의 설명이다. 따라서 'ㄴ, ㄷ'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③ O — ㄱ과 ㄹ이 모두 옳다. CML은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인 시장포트폴리오를 함께 고려한 효율적 투자기회선이며,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에 대응하는 균형 기대수익률을 제시하므로 그 포트폴리오의 균형가격 산정에 필요한 할인율을 제공한다.
④ X —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다. ㄷ은 CML이 아니라 SML의 설명이다. CML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총위험 간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ㄷ, ㄹ'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⑤ X — ㄴ과 ㄷ이 틀리고 ㄹ만 옳다. 개별주식의 평가와 체계적 위험을 기준으로 한 기대수익률 관계는 SML에 관한 내용이다. CML에 관한 옳은 설명은 ㄱ과 ㄹ이므로 'ㄴ, ㄷ, ㄹ'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ㄴ과 ㄷ은 CML의 자리에 SML의 기능을 넣은 함정이다. 특히 '개별주식', '체계적 위험', '과소평가·과대평가'가 나오면 SML을 떠올려야 한다. CML 아래라는 표현만으로 개별주식의 저평가를 판정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적용 대상과 위험 기준을 함께 본다. 효율적 포트폴리오와 총위험이면 CML이고, 개별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과 체계적 위험 또는 저평가·고평가 판단이면 SML이다.

암기 포인트

CML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총위험, SML은 모든 자산·체계적 위험·가격평가이다.

NoteBase

문 118. 유동비율 = (A)유동부채 × 100,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1 + 부채비율) × (B)일 때, 각각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A: 유동자산, B: 총자본순이익률

② A: 유동자산, B: 매출액순이익률

③ A: 유동자산, B: 총자본회전율

④ A: 유형자산, B: 총자본회전율

⑤ A: 유형자산, B: 매출액영업이익률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유동비율의 분자와 부채비율을 이용한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의 분해 공식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유동비율은 단기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므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다.
부채비율이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일 때, 총자본은 자기자본과 부채의 합이므로 총자본은 자기자본의 1+부채비율배이다.

사용할 공식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당기순이익총자본×총자본자기자본=총자본순이익률×(1+부채비율)
첫째 공식은 유동비율의 정의이고, 둘째 공식은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총자본순이익률과 재무레버리지로 분해한 것이다.

계산 과정

1. 유동비율의 분자를 확인하면 (A)=유동자산이다.
2. 총자본/자기자본=1+부채/자기자본=1+부채비율이다.
3. 따라서 (B)=당기순이익/총자본=총자본순이익률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A는 유동자산이고 B는 총자본순이익률이므로 두 공식에 모두 맞는다.
② X — A는 맞지만 B의 '매출액순이익률'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총자본순이익률'이다. 매출액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어서 이 식에 바로 대입할 수 없다.
③ X — A는 맞지만 B의 '총자본회전율'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총자본순이익률'이다. 총자본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본으로 나눈 활동성 비율이다.
④ X — A의 '유형자산'과 B의 '총자본회전율'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A가 '유동자산', B가 '총자본순이익률'이다.
⑤ X — A의 '유형자산'과 B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모두 틀렸다. 올바르게는 A가 '유동자산', B가 '총자본순이익률'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수익성 비율이다.

오답 포인트

B를 듀퐁식의 다른 구성요소인 매출액순이익률이나 총자본회전율과 혼동하기 쉽다. 문제의 식에는 두 요소의 곱이 아니라 하나의 B만 있으므로, 당기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눈 총자본순이익률이 들어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율 공식은 분자와 분모를 먼저 적는다. ROE 식에서는 당기순이익/자기자본에 총자본을 연결하여 당기순이익/총자본과 총자본/자기자본으로 분해한다.

암기 포인트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유동부채, ROE는 총자본순이익률×(1+부채비율)이다.

NoteBase

문 119. 회계감사의 감사의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적정 의견
② 부적정 의견
③ 한정 의견
④ 불한정 의견
⑤ 의견 거절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회계감사에서 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감사의견은 재무제표가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에 관한 감사인의 결론이다.
감사의견의 종류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한다.
한정의견은 왜곡 또는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을 때, 부적정의견은 중요하고 전반적인 왜곡이 있을 때, 의견거절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한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일 때 제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적정 의견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용되는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감사의견이다.
② O —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의 왜곡이 중요하고 전반적이라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감사의견이다.
③ O — 한정 의견은 발견된 왜곡 또는 감사증거 미확보의 영향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하는 감사의견이다.
④ X — '불한정 의견'은 감사의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올바른 분류는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이다.
⑤ O — 의견 거절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하여 그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일 수 있을 때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형태이다.

오답 포인트

'한정 의견'이 있으므로 그 반대말처럼 보이는 '불한정 의견'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한정 의견의 반대 개념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의견은 '적정 의견'이며, '불한정 의견'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사의견 명칭을 묻는 문제에서는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의 네 가지를 기준으로 대조한다. 이 목록에 없는 '불한정'과 같은 표현은 감사의견의 정식 분류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감사의견 네 가지는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이며, 불한정 의견은 없다.

NoteBase

문 120. 자본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이익잉여금
② 사채
③ 영업권
④ 미수수익
⑤ 선수수익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자본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산은 기업이 보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이고, 부채는 미래에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이며,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 등으로 처분하지 않고 내부에 유보한 누적액으로서 자본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등으로 누적된 이익 가운데 기업 내부에 유보된 금액이므로 자본 항목이다.
② X — 사채를 자본으로 분류한 부분이 틀리다. 사채는 기업이 자금을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채 항목이다.
③ X — 영업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부분이 틀리다. 영업권은 기업결합에서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이다.
④ X — 미수수익을 자본으로 분류한 부분이 틀리다. 미수수익은 수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권리이므로 자산 항목이다.
⑤ X — 선수수익을 자본으로 분류한 부분이 틀리다. 선수수익은 현금을 먼저 받았지만 아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 이행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부채 항목이다.

오답 포인트

이익잉여금의 명칭에 '이익'이 들어 있어 수익으로 오해하거나, 현금을 미리 받은 선수수익을 자산으로 오해하기 쉽다. 수익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 항목인 반면, 누적되어 처분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제적 자원이면 자산, 갚거나 이행할 의무이면 부채,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잔여지분이면 자본으로 구분한다. ‘미수’는 받을 권리이므로 자산이고, ‘선수’는 아직 이행할 의무가 남으므로 부채이다.

암기 포인트

이익잉여금은 자본, 사채·선수수익은 부채, 영업권·미수수익은 자산이다.

NoteBase

문 121. 최근 3개월 자료로 가중이동평균법을 적용할 때, 5월의 예측생산량은? (단, 가중치는 0.5, 0.3, 0.2를 적용한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제품생산량(개)	90만	70만	90만	110만

① 87만개

② 90만개

③ 93만개

④ 96만개

⑤ 99만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최근 3개월의 실제 생산량에 서로 다른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 달의 생산량을 예측하는 가중이동평균법을 묻는다.

조건 정리

5월 예측에는 최근 3개월인 2월, 3월, 4월의 생산량을 사용한다.
2월 생산량은 70만 개, 3월 생산량은 90만 개, 4월 생산량은 110만 개이다.
가중치는 가장 최근인 4월부터 차례로 0.5, 0.3, 0.2를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F_5=(4월 실제생산량)×0.5+(3월 실제생산량)×0.3+(2월 실제생산량)×0.2
가중이동평균법은 각 기간의 실제값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한 뒤 합산하며, 이 문항에서는 최근 자료일수록 큰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F_5 = 110 \times 0.5 + 90 \times 0.3 + 70 \times 0.2$

$= 55 + 27 + 14 = 96$

따라서 5월의 예측생산량은 96만 개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87만 개는 계산 결과 96만 개와 다르다. 올바른 예측생산량은 96만 개이다.
② X — 90만 개는 세 달의 생산량을 단순평균한 값이며, 서로 다른 가중치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다. 올바른 예측생산량은 96만 개이다.
③ X — 93만 개는 최근 3개월의 생산량에 0.5, 0.3, 0.2를 올바르게 대응하여 합산한 값이 아니다. 올바른 예측생산량은 96만 개이다.
④ O — $110 \times 0.5 + 90 \times 0.3 + 70 \times 0.2 = 96$이므로 96만 개가 맞다.
⑤ X — 99만 개는 가중치를 올바르게 적용한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른 예측생산량은 96만 개이다.

오답 포인트

최근 3개월을 1~3월로 잡거나 가중치 0.5를 가장 오래된 달에 적용하면 틀린다. 5월 예측에는 2~4월 자료를 사용하고, 가장 최근인 4월에 가장 큰 가중치 0.5를 적용한다. ②의 90만 개는 가중치를 무시한 단순평균이라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측 대상의 직전 기간부터 필요한 개수만큼 자료를 고른 뒤, 가장 최근 자료부터 큰 가중치를 대응시켜 곱하고 합산한다. 마지막으로 가중치의 합이 1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가중이동평균은 '최근 자료에 큰 가중치, 각 값에 가중치를 곱한 뒤 합산'이다.

NoteBase

문 122. 다음이 설명하는 기법은?

◯ 비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유용하다.
◯ 경험을 체계화하고 정형화하여 해결책을 발견한다.

① 팀 빌딩
② 휴리스틱
③ 군집분석
④ 회귀분석
⑤ 선형계획법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비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경험에서 얻은 판단 규칙을 체계화하여 활용하는 기법이 휴리스틱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휴리스틱은 과거의 경험과 직관에서 얻은 탐색 규칙이나 간편한 판단 기준을 이용하여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 기법이다. 엄밀한 최적해를 항상 보장하지는 않지만, 구조화하기 어렵거나 가능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기 힘든 문제에 유용하다.
팀 빌딩은 구성원 간 관계와 협업을 개선하는 조직개발 기법이고, 군집분석과 회귀분석은 자료를 분석하는 통계기법이며, 선형계획법은 선형의 목적함수와 제약조건 아래에서 최적해를 구하는 수리적 기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팀 빌딩은 집단 구성원의 의사소통, 신뢰, 역할 관계를 개선하여 팀의 효과성을 높이는 조직개발 기법이다. 틀린 표현은 '팀 빌딩'이며, 제시문의 기법은 '휴리스틱'이다.
② O — 휴리스틱은 경험을 판단 규칙으로 체계화하여 비구조적인 문제에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탐색하는 기법이므로 제시문과 일치한다.
③ X — 군집분석은 관측 대상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서로 비슷한 대상을 같은 집단으로 묶는 통계기법이다. 틀린 표현은 '군집분석'이며, 제시문의 기법은 '휴리스틱'이다.
④ X —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와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고 예측하는 통계기법이다. 틀린 표현은 '회귀분석'이며, 제시문의 기법은 '휴리스틱'이다.
⑤ X — 선형계획법은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이 선형으로 표현되는 문제에서 자원을 배분하여 최적해를 구하는 기법이다. 틀린 표현은 '선형계획법'이며, 제시문의 기법은 '휴리스틱'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문제 해결 기법’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선형계획법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선형계획법은 목적함수와 제약조건이 명확한 구조적 문제에 적용하는 반면, 제시문은 ‘비구조적인 문제’와 ‘경험의 체계화’를 강조하므로 휴리스틱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문에 ‘비구조적 문제’, ‘경험·직관’, ‘탐색 규칙’,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되면 휴리스틱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목적함수·제약조건·최적해가 강조되면 선형계획법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경험 규칙으로 비구조적 문제를 푸는 기법은 휴리스틱이다.

NoteBase

문 123. 전사적 자원관리(ERP) 도입의 효과가 아닌 것은?

① 신기술 수용 및 활용

② 사업장 및 업무통합

③ 고객 이미지 개선

④ 정보 적시 제공

⑤ 업무프로세스 복잡화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전사적 자원관리(ERP)의 도입이 기업의 정보·업무·고객 대응에 미치는 효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ERP는 재무, 생산, 인사, 영업 등 기업의 주요 업무와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ERP를 도입하면 부문 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업무가 통합·표준화되고, 정보 제공과 의사결정이 빨라지며, 중복 업무와 복잡한 절차가 줄어든다.

선지별 해설

① O — ERP 도입 과정에서는 통합 정보시스템과 관련 기술을 조직 전반에서 사용하므로 신기술의 수용과 활용이 촉진된다.
② O — 부서와 사업장별로 흩어진 데이터와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므로 사업장 및 업무통합은 ERP의 대표적 효과이다.
③ O — 주문·납기·재고 정보가 연계되어 고객 문의와 요구에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보이는 기업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④ O — 각 부문의 데이터가 통합되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공유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적시 제공이 가능해진다.
⑤ X — 틀린 표현은 '업무프로세스 복잡화'이다. ERP는 중복 업무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업무를 표준화하므로, 올바르게는 '업무프로세스 단순화·효율화'이다.

오답 포인트

ERP는 대규모 시스템이어서 도입 과정 자체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지만, 도입의 효과는 업무프로세스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합·표준화하여 단순화하는 것이다. '도입 과정의 복잡성'과 '도입 후 업무프로세스의 효율화'를 혼동하면 ⑤를 놓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ERP의 효과는 '통합, 실시간 정보 공유, 표준화, 중복 제거, 신속한 의사결정'의 방향으로 판단한다. 분절, 정보 지연, 중복 증가, 업무 복잡화처럼 이와 반대되는 표현은 ERP의 일반적 도입 효과가 아니다.

암기 포인트

ERP는 전사 통합으로 정보는 빠르게, 업무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

NoteBase

문 124. 모바일 비즈니스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재성
② 접근성
③ 고정성
④ 편리성
⑤ 접속성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모바일 비즈니스가 이동통신망과 휴대용 단말을 바탕으로 장소의 제약 없이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특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모바일 비즈니스는 이동 중에도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사업 방식이다.
핵심 특성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편재성, 사용자가 서비스에 쉽게 도달하는 접근성, 휴대 단말로 간편하게 이용하는 편리성, 네트워크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접속성이다. 고정성은 장소에 묶인다는 뜻이므로 모바일의 이동성과 반대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편재성은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적게 받고 어디서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이므로 옳다.
② O — 접근성은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을 통해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이므로 옳다.
③ X — 고정성은 특정 장소에 묶여 있다는 뜻이므로 모바일 비즈니스의 특성이 아니다. 틀린 표현인 '고정성'은 '이동성'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편리성은 휴대 가능한 단말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나 거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특성이므로 옳다.
⑤ O — 접속성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와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다는 특성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③의 '고정성'을 안정적으로 접속되는 성질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고정성은 장소에 고정된 성질이며, 모바일 비즈니스의 핵심은 그 반대인 이동성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이동 중 이용, 장소 제약의 완화, 쉬운 접근, 간편한 사용, 네트워크 연결과 관련되면 모바일 특성으로 판단한다. 특정 장소에 묶인다는 의미이면 모바일의 본질과 반대되는 특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모바일은 편재·접근·편리·접속·이동이며, 고정은 모바일의 반대이다.

NoteBase

문 125. 빅 데이터(big data)의 기본적 특성(3v)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거대한 양(volume)
ㄴ. 모호성(vagueness)
ㄷ. 다양한 형태(variety)
ㄹ. 생성 속도(velocity)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빅데이터의 기본 특성인 3V가 무엇인지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빅데이터는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만큼 규모가 크고, 형태가 다양하며, 빠르게 생성·처리되는 데이터를 뜻한다.
3V는 Volume(거대한 양), Variety(다양한 형태), Velocity(빠른 생성·처리 속도)이다.
Vagueness(모호성)는 기본 3V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의 Volume은 맞지만 ㄴ의 Vagueness는 3V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ㄴ. 모호성'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ㄷ·ㄹ이다.
② X — ㄷ의 Variety는 맞지만 ㄴ의 Vagueness는 3V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ㄴ. 모호성'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ㄷ·ㄹ이다.
③ X — ㄱ의 Volume과 ㄹ의 Velocity는 맞지만 ㄴ의 Vagueness가 잘못되었고 ㄷ의 Variety가 빠졌다. 'ㄴ'을 'ㄷ'으로 고치면 ㄱ·ㄷ·ㄹ이 된다.
④ O — ㄱ Volume, ㄷ Variety, ㄹ Velocity가 모두 빅데이터의 기본 특성인 3V에 해당한다.
⑤ X — ㄷ의 Variety와 ㄹ의 Velocity는 맞지만 ㄴ의 Vagueness가 잘못되었고 ㄱ의 Volume이 빠졌다. 'ㄴ'을 'ㄱ'으로 고치면 ㄱ·ㄷ·ㄹ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V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라는 이유만으로 Vagueness를 3V에 포함시키는 것이 함정이다. 기본 3V는 데이터의 양·다양성·속도를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항목의 영문 첫 글자만 보지 않고 Volume·Variety·Velocity의 세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빅데이터 3V는 양(Volume)·다양성(Variety)·속도(Velocity)이다.

NoteBase